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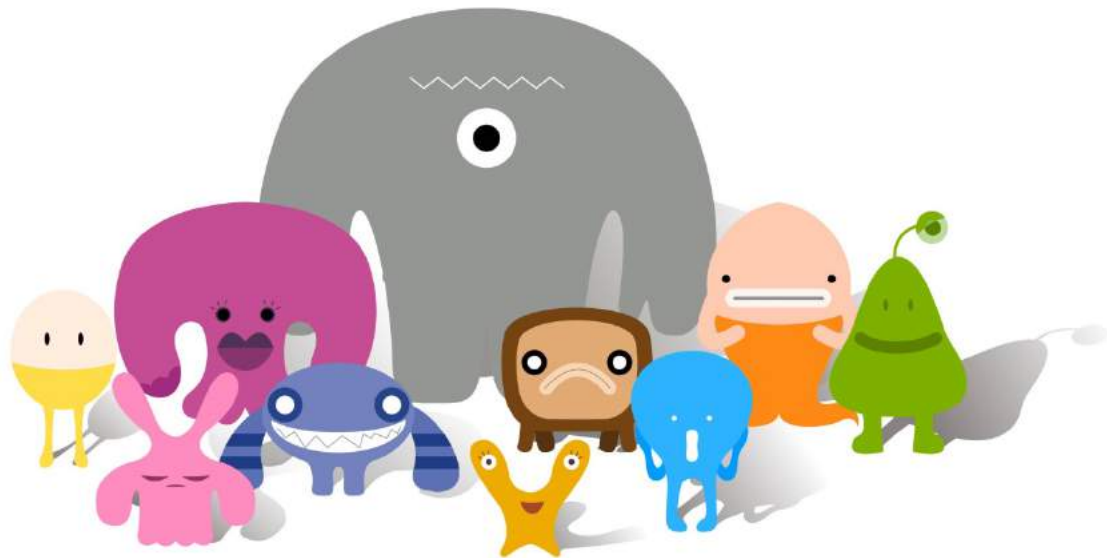
포트폴리오 기획안

조희정

FRIENDS MON

10마리의 몬스터들의 총집합!

예쁜 척 하는 오토몬, 무표정 망망몬, 녹색 눈 글루몬, 튀는 눈을 가진 티눈몬, 비명 지르는 슈림몬, 이빨이 못생긴 티스몬, 바지 입은 달걀괴를 에그몬, 못생긴 박스괴를 어글몬, 덩치 큰 외눈 비크몬, 뽀뽀 기질이 있는 땡땡몬이 펼치는 판타지하고 아기자기한 우정이야기!



오토몬



밍밍몬



글루몬



티눈몬



슈림몬



티스몬



에그몬



어글몬



비크몬



땡땡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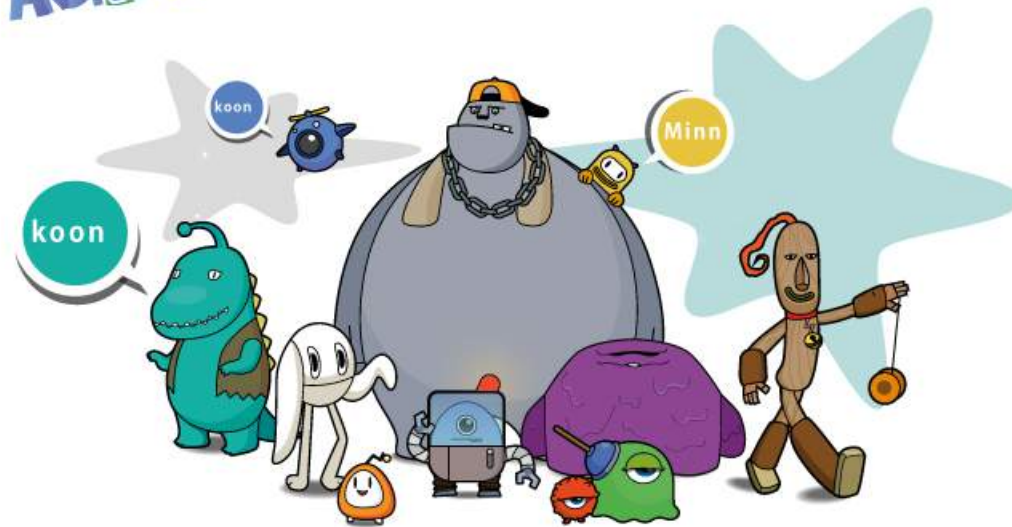
FRIENDS MON Lab 02

Screaming SHURIM MON is always scream





안드로메다 외계행성에서 온 정체불명의 친구들!
저마다의 독특한 개성을 지닌 안드로메다 친구들의 시끌시끌한 스토리!





ANDROMEDA Friends

This monster friends are very silly and fun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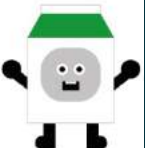
They are from Andromeda, and also they are stranger of Earth.



koon



Minn



24시
Friend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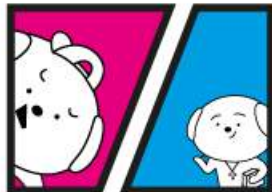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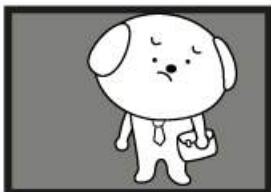
24시 Friends

24시 Friends

24시간 내내 몰려다니는 편의점 친구들은
늘 사이좋은 모습이다. 캔음료부터 과자, 우유, 쥬스까지...
다양한 친구들이 함께 어우러져 왁자지껄 떠드는 모습은
마치 초등학교를 연상케 한다.



PP IGLE



멋지지 않아?

난 늘 비웃는
상이지!



KOMY

조폐공사 캐릭터 코미. 귀엽고 깜찍한 외모로 조폐공사 보안을 담당한다. 역동적이고 날렵한 몸으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다.



"안녕? 내 이름은 코미야!
조폐공사 보안을 담당하지!"



"대한민국 1등 화상의 조폐공사가
되었습니다!"

SEMY

조폐공사 캐릭터 코미의
친구 세미. 둘은 붙어다니는
단짝친구이며 정보를 교환한다.



KOMSCO







MAKJANG Friends

안녕 : 우리 막장 프렌즈야 :



난 똥쟁이 다지.
똥싸때 쾌감을 느껴!



난 먹보 멍이.
영광인줄 알아라~



난 작은 비그리.
여보시개...?



"아침은 생략해야겠다."

"늦었다. 지금 몇시지?"

오늘도 바쁜 출근길.

시계를 보지 마세요.

쫄쫄 표정 대신 웃어보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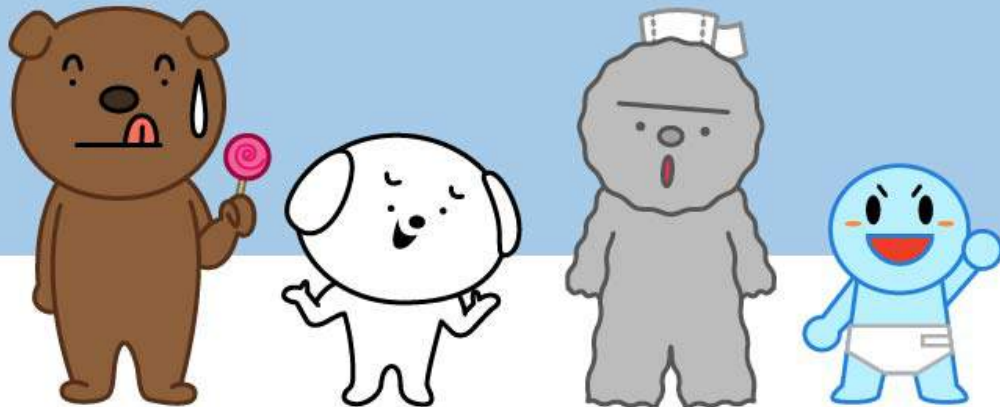
당신의 미소가 모두의 출근길을 여유롭게 만듭니다.

Pooky Friends

•
;

늘 땀을 흘리는 두기(DOOGY), 늘 비웃는 상인 비글이(PIGGLE), 휴지 없고 다니는 먼지덩이
비송 송이(SSONG), 그리고 귀여운 아기 베이피(BAPY)와 함께 하는 스토리!

푸키 프렌즈!



포냥스 🐾



조짐사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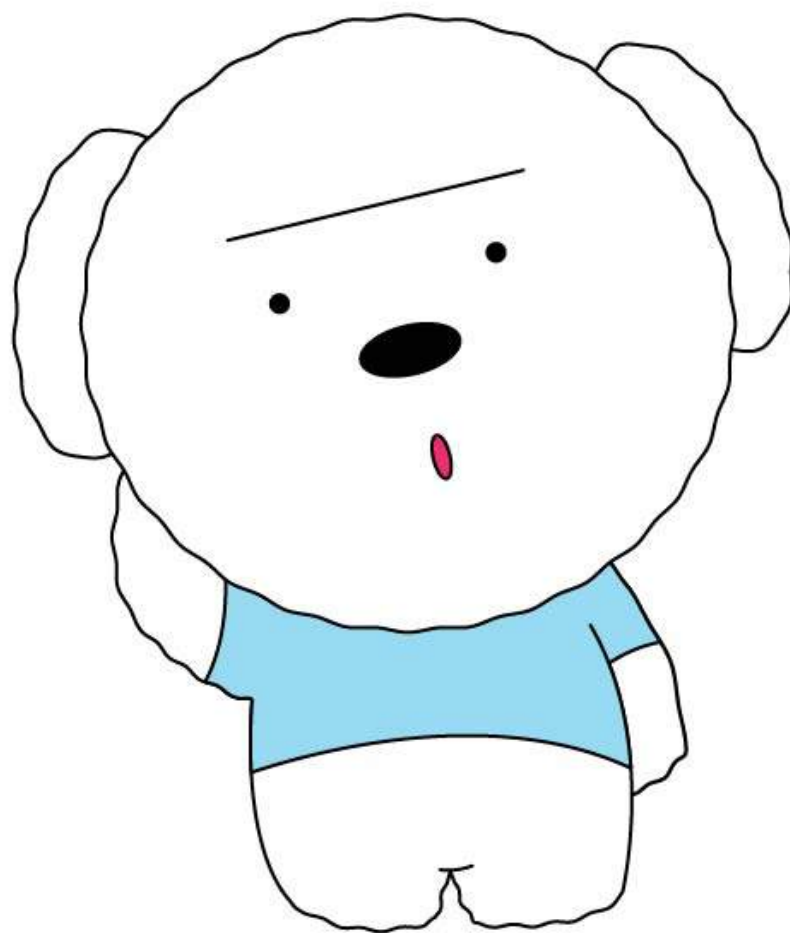


잘 싸는 두부모래

항균부터 만지 최소화까지 완벽히!
합리적으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
100%콩비지 두부모래입니다.



반 카오!^^







방귀쟁이 승지몬에게
어허 란...

어허

어허~



먹보 냘냥

초롱초롱 토미

주룩기는
뽕살 잡기

어허[Uh huh]: 딱히 할말이 없을 때 쓰는 말

예를 들어 상대방이 “~에 가자.” 혹은 “너네 집에서 자고 갈래.”

라는 말을 했을 때 긍정 또는 부정의 반응이다. 50대 50이며 상황과 기분에 따라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다.

육재이 영희몬에게
음.... 이란...

음...

주특기는
이.쁜.척

멍뽕!



음[Umm]: 단톡방에서 그자리를 모면할 때 쓰는 말이나 혹은 할 말 없을 때 쓰는 말이다. “음...” 이란 말을 던지고 톡을 안본다.



HENRY'S TOY STORY



목수 헨리는 요정들과 장난감을 만들며 살고 있다.
아이들을 좋아하는 헨리는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에게 만들어줄 장난감을 만든다.

JOSHUA₊





가자 그날까지

혼자일 때 세상은 내게 춥고 외로운 곳
사람은 없고 좁은 문만이 보였다
춥더라도 떨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자
우울해하지 말자 나에게 가는 가야할 길이 있다
슬프더라도 울지 말자

내 눈 가득 고인 눈물 훔쳐내고
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자 비를 만나고
눈을 만나도 앞으로만 나아가자

그리고 가슴 속 깊이 간직해두었던
나의 마음을 노래해야지
멀고 먼 길이지만 나는 그 길을 가겠다
빛나는 별을 볼 수 있는
그날까지 앞으로만 가겠다.



할로윈

10월 마지막은 할로윈 데이
달달한 분홍 사탕에 녹아내리는 혀.



네 다리

나는 네 다리가 좋아
베고 있으면 잠이 쏟아져.



“산책이 그렇게 좋아?”

“응! 나보다 크고 넓은 이 세상을 언제든지
보고 싶어!”



2018.10.3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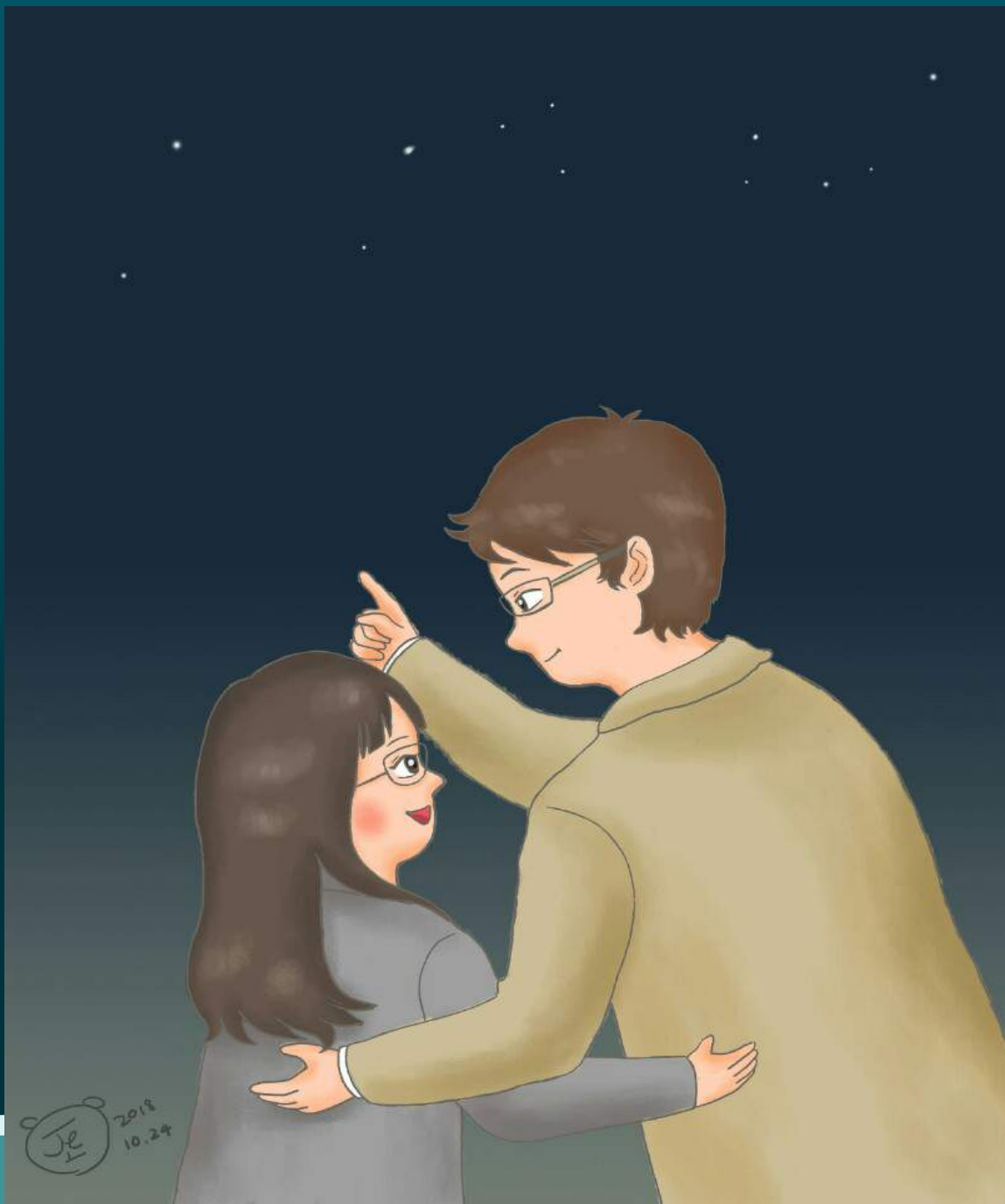


2018.10.30



너와의 하루가
소중하고 즐거워





꽃의 나이 스물여덟

꽃이 피었다
그 꽃이 어떤 꽃이든 상관없다
나비와 벌들을 불러올 매력과 향만 있다면

차가운 겨울이 가고 봄날이 오면 꽃은
흙을 뚫고 얼굴을 내민다

나는 한 송이의 푸른색 청춘꽃
사랑도 하고 싶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다

내 나이 스물여덟
서른이 채 안된 청춘의 꽃
더 늦기 전 꽃잎 하나둘 떨어뜨리기 전에
말하고 싶다

이른 나이라면 그런 나이
늦은 나이라면 그런 나이

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여름날
꺾이는 아픔을 겪고
성장하는 나

꽃다운 스물여덟의 해를 활기차고 즐겁게 열어간다.



나만의 작은 공간

살면서 힘든 날은 많아

그때마다 참으려고 애를 쓰지만
정말 힘든 날엔
소리 내어 울기도 해

내 눈에서 맑은 이슬이 흘러내리면
나는 나만의 공간을
창조하곤 하지 이곳엔 아무도
들어올 수 없어
오로지 나만 숨 쉴 수 있는
공간이야

슬픔과 눈물이 없는
이 공간에서는
무엇이든 할 수 있어
나는 이곳에서 시를
쓰고 그림을 그려
그리는 동안 내 눈물은
마르고 입가엔 행복한
미소가 번져 아픈 것들이 다 날아가
버리면 나는 하늘 위
구름에 누워 단잠을 즐겨.



나는 시인

시인이 되었다
수백 명의 별들 중 내가 하늘에 뿜다
내가 그런 삽화와 시를 다시 본다

지난날 아픔 눈물 그리고 달콤했던 기억들이
순간의 조각이 되어 그대로 담겨있다

시를 쓰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을까
또 웃었을까

열여섯 살부터 견뎌왔던 시간
12년 동안 장미밭 가시에 받은 상처들로
시를 묶어 나는 시인이 되었다

상처로만 있는 시는 아니다
또 다른 나에게 줄 별의 음성

별이 그들에게 말한다

무너지지 마라 너는 강한 사람
상처 받을지언정 강하고 소중한 사람

창가 너머 하늘에 작은 별이 떠있다
작지만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별 하나
그게 바로 나 시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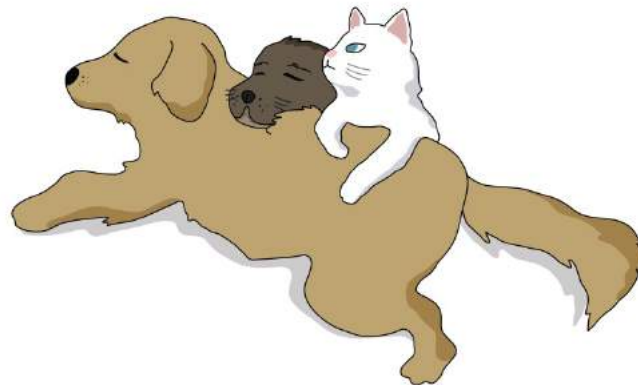




CHJ 2018



elegance®



Feel relax with your petS

DICK VAN PATTEN'S
Natural Balance
K O R E A, I N C.



Present your pets Healthy and Bueauty


ROYAL CANIN®





감사합니다.

